

[사회]

음주운전 채혈 요구 낭패 본다

광주 서부경찰 265건 국과수 의뢰 77%가 호흡측정치보다 되레 높다

음주운전에 적발돼 혹이나 하는 마음에 채혈(採血)을 의뢰했다간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단속한 건수는 2천991건. 경찰은 이중 운전자가 채혈 측정 을 의뢰한 265건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76.6%(203건)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올라갔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측정기를 통해 0.066%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김모(42·광주시 서구)씨는 불구속 입건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

지됐다. 하지만 김씨는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수치가 0.118%로 높아져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호흡측정으로 0.063%가 나온 최모(43·광주시 광산구)씨도 채혈 감정을 의뢰했지만 0.082%가 나와 벌금이 되레 20만원이나 많아졌다.

현재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1차로 음주감지기를 이용,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서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 호흡측정을 하고 있다.

경찰은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불구속 입건하고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채혈을 원하는 운전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도로단속처리 지침에는 음주측정기의 수치보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수치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 호흡측정 수치는 의미가 없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호흡측정기보다는 혈액 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한 게 사실”이라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0.05%)와 취소(0.1%) 수치에 가까운 음주운전자들이 ‘실낱’같은 희망으로 채혈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지역 전문대 취업률 호조 4년제 대학은 전국평균 밑돌아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들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7년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취업률 조사’ 결과 취업률 상위권에 들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4월 1일 기준) 전국 376개 대학 및 142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632명에 대해 취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 65.1% ▲4년제 대학 48.7% ▲일반대학원 61%이었다. 임시직·시차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취업률은 ▲전문대학 85.2% ▲4년제 대학 68% ▲일반대학원 81.7%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취업률은 ▲전문대학 91.6% ▲4년제 대학 58.9% ▲일반대학원 87.1%이며, 전남은 ▲전문대학 80.7% ▲4년제 대학 68.4% ▲일반대학원 85.9%이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의 경우 A그룹(졸업자 3천 명 이상) 중 취업률 ‘60% 이상~70% 미만’에 조선대만 포함됐으며, D그룹(졸업자 1천 명 미만)은 목포가톨릭대학이 ‘80% 이상~90% 미만’ 군에 속했다.

전문대학은 A그룹(졸업자 2천 명 이상) ‘95% 이상’ 취업률에 송원대학이, B그룹(졸업자 1천 명 이상~2천 명 미만)은 ‘95% 이상’에 서강정보대학, ‘90% 이상~95% 미만’에 동강대학이 각각 들어갔다. 일반대학원은 A그룹(졸업자 500명 이상) ‘85% 이상’에 전남대·조선대, B그룹(졸업자 100명 이상~500명 미만) ‘80% 이상~90% 미만’에 목포대·순천대가, C그룹(졸업자 100명 미만) ‘100%’ 취업률은 남부대학, ‘90% 이상~100%’ 미만엔 호남신학대가 해당됐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전남지역 대학 졸업자 취업률 및 진학률

구분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졸업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총계	215,040	85.2%	3.8%	277,858	68.0%	9.9%	35,033	81.7%	10.9%
광주	9,983	91.6%	3.5%	10,901	58.9%	6.8%	1,512	87.1%	9.3%
전남	11,102	80.7%	3.2%	7,321	68.6%	4.8%	407	85.9%	9.3%

겨울 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 후 개겠다.

11월 20일
(음 10월 11일)
◇ 전국날씨

광주	비 후 맑음	4~8℃
주요	비 후 맑음	5~8℃
여수	비 후 맑음	4~9℃
안동	비 후 맑음	4~9℃
대구	비 또는 눈 후 맑음	2~8℃
부산	비 후 맑음	3~9℃
울산	비 후 맑음	3~10℃
전주	비 후 맑음	2~9℃
대전	비 후 맑음	3~8℃
충주	비 후 맑음	5~10℃
청주	비 또는 눈 후 맑음	3~8℃
영주	비 또는 눈 후 맑음	1~8℃
춘천	비 후 맑음	6~8℃

서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9:59 썰물 < 03:17
여수 밀물 < 05:13 썰물 < 23:51

▲해돋이 07:11 ▲해질 17:24 ▲달돋이 14:20 ▲달질 01:4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날씨						
최저/최고	2/10	2/14	3/13	3/15	3/15	5/13



정지 장군 616주기 제향제
19일 경렬공(景烈公) 정지(鄭地) 장군의 순절 616주기 제향 행사가 열린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이신재 해군 3함대 사령부 부사령관(대령)이 분향 후 경례하고 있다. 정지 장군의 시호를 딴 '정지함'(잠수함) 함장인 송기성 중령과 해군 장병들도 헌화 참여했다. 정지 장군(1347~1391)은 해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 문무를 겸비한 고려시대의 장군이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강대·성균관대 등도 내신 반영 축소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이어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들도 내신 상위 등급 점수 차를 줄여 내신의 영향력을 대폭 감소시킨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19일 서강대에 따르면 올해 정시모집 입시에서 학생부 배경은 1~4등급이 각각 400점, 399.2점, 397.6점, 396 점으로 1등급과 4등급 사이의 점수 차이가 4점에 불과했다.

성균관대도 최근 발표한 정시모집 입시에서 1~5등급 학생부 배경을 각각 470점, 469.5점, 469점, 468점, 467 점으로 확대해 1~2등급과 2~3등급 점수 차는 각각 0.5점, 3~4등급과 4~5등급의 점수 차는 각각 1점 이상에서 1~5등급 점수 차가 3점에 그쳤다.

한양대 역시 내신 1~5등급의 각 등급 간 점수 차를 0.7점씩으로 축소했으며 중앙대 역시 1~4등급에서 각 등급 간 2점씩의 점수 차를 돌 방침이다.

연세대는 1~5등급 사이 2점, 고려대는 1~4등급 사이 2.4점, 이화여대는 1~4등급 사이 3.8점의 점수 차이를 둔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연필뉴스

김포외고 불합격 처리 63명으로 늘어

경기도교육청은 19일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에서 9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추가 불합격 처분 대상자는 모두 김포외고에 합격한 서울 목동 종로M학원생들이며 이에 따라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이다.

불합격 처분 대상자 가운데 서울 목동 종로M학원 학원생은 6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잠적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 교사로 부터 개인적으로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판매업자 박모(42)씨의 자녀이다.

도 교육청은 시험문제 유출에 관련된 각 외고 합격자가 추가 확인될 경우 역시 불합격 처리 후 재시험을 통해 해당 인원만큼 추가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9일에 해당 학교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필뉴스

4대 사회보험 노조 파업 돌입

정수업무 통합 반발 공동투쟁 나서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이 보험 징수업무를 국제청 산하 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데 반발해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4대 사회보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7천여 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동대회'를 열고, 4대 보험료 징수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정책을 막기 위해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노조원 220여 명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원 147명은 21일까지 오후 1~6시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동투쟁본부'는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이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자체의 붕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행정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국제청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법률안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어제 새벽 영암 삼호읍 2.1 규모 지진

광주·전남 1984년 이후 64건

19일 새벽 5시51분께 영암군 삼호읍(영암군에서 서쪽으로 20km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지진계로만 감지될 수 있는 작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새벽 3시5분께에도 고흥군 남동쪽 38km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등 지질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84년부터 올해까지 광주·전남에선 64건의 지진이 관측됐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광주·나주·목포·해남·완도·장흥·고흥·순천·여수·흑산도 등 10곳에 지진계가 설치돼 있으며, 진동이 감지되면 곧바로 기상청 지질감시대에 통보된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료 무료 환급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

개강: 11월 15일 주·야(종합반)모집 (합격반)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www.kjkimyoung.co.kr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야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전문대 졸업(예정)자 4학년 대학 2학년으로 마치고,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9088

발명특허 제0526760호 - 체내 니코틴 분해효과와 다이옥신 독성감소의 생약재 추출조성물

담배뚫! 독소안녕~

생약재 추출물 신물질 성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팀 개발 옥타코사놀 관련 KBS, MBC, YTN, TV뉴스 및 각언론 집중보도

개발 및 연구 성균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실 성균관대학교 응용분자 생물학 연구팀

■ 3일 섭취후 변화를 직접 확인 가능
옥타코사놀의 주원료인 생약물질 추출물은 3일 이후면 체내 니코틴이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면 소변색깔이 타하고 양이 많아지며 피로감이 없어지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3일정도 지나면 평소보다 많은 양의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을 느끼는데 니코틴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니코틴부족으로 더 많은 양의 흡연욕구를 느끼지만 흡연 정도 지나면 소변색깔도 정상으로 맑아지며 담배맛이 없어 흡연욕구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의학력 부족으로 2개월이 지나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분은 계속 드시기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이 모두 배출되어 담배를 피워도 몸 자체에서 거부 반응으로 기침과 구토등으로 처음 담배를 배울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금연에 성공 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호르몬, 공해물질, 황사로 인하여 걱정만 하지 말고 중금속과 니코틴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만사가 편안하고 합심 생활을 할것이라고 학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 2008.1.은 꼭 금연에 성공하고 국민 모두가 한층 더 건강하십시오

제조원 : 품담무역 판매원 : (주)성균카이오테
문의 : 02)541-0504, 541-0949
농림 175388-56-08774(김정애)